

한국인의 나눔노력에 관한 연구

Heckman Selection Model과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한 분석

I. 서론

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2. 변수 및 변수의 측정
3. 분석방법
4. 연구질문

III. 기술적 분석결과

1. 자원봉사관련 기술분석
2. 기부관련 기술분석
3. 기타 변수들에 관한 변수분석- 신뢰와 나눔의 사회화
4. 기부동기 외에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IV.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및 수행정도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1. 자선적 기부활동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3. 기타 변수들에 관한 변수분석- 신뢰와 나눔의 사회화

V. 자선적 기부노력 및 자원봉사 노력과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1. 자선적 기부노력과 사회적 신뢰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2.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VI. 결론 및 논의



한국인의 나눔노력에 관한 연구 : Heckman Selection Model과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한 분석 -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E-mail : chulheekang@yonsei.ac.kr

○ 학력

1986년 2월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 문학사
1989년 5월 Ohio State University, M.S.W.
1994년 12월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d.

○ 최근 주요 경력

1994년 9월 - 1995년 8월 University of New Hampshire, 조교수
1995년 9월 - 200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부교수
2004년 3월 -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교수, 현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POSCO 청암재단 이사, 중부재단 이사, KBS복지재단 이사

○ 최근 학회 활동

한국사회복지학회 정회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이사, 한국비영리학회 이사

○ 최근 저서

강철희 외 (2006)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최근 논문

강철희(2005)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사회복지학, 57(4)
강철희, 이홍직, 홍현미라(2005),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인적자본관점과 인간능력관점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7(3)
이동렬, 강철희, 이지윤, 박설희(2005), "Characteristics of Exemplary Altruist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5(2)
강철희, 최소연(2005), "사회복지 수퍼비전의 방향 및 변인들에 관한 고찰: 연구와 실천방안을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1)

○ 최근 연구보고서

강철희 외(2006), 개인 및 잠재적 고액기부 관련 조사연구, 한국공동모금회
강철희 외(2005), 동작복지재단 사업방향에 관한 연구, 동작복지재단
강철희 외(2005),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의 사회복지체계의 변화와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철희 외(2005), 기업의 사회공헌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강철희 외(2005), 이타주의: 이론과 실제, 아산복지재단
강철희 외(2005), 지역재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인의 나눔노력에 관한 연구

1. 서론

나눔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현금과 현물의 나눔 그리고 둘째는 시간의 나눔이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형태의 나눔은 기부로 불리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형태의 나눔은 자원봉사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해 보고, 아울러서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과 관련성이 있는 예측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서 나눔노력과 신뢰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나눔노력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이다. 나눔활동에의 참여가 활성화될 때 사회적 연대의 구축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눔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눔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참여 강도이다. 나눔을 위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동시에 나눔을 위한 참여의 강도가 보다 강화되어질 수 있을 때 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나눔과 관련해서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나눔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 그리고 나눔참여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의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나눔의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눔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흔히 사용하는 문장이 "Charity begins at home"인데, 이는 나눔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실천으로부터 비롯되는 경향이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나눔의 시작은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교육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만약 그 교육이 학교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만약 나눔 교육이 종교단체나 지역사회기관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실천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세대에서 나눔의 끈이 보다 공고하게 구축되고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사회의 미래 전망을 보면, 사회적 불안정성이 쉽게 예측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노동할 수 있는 인구의 수 역시 절대적으로 감소되면서 노동 연령에 속하는 이들의 연금 등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점차 가중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국가 재정의 취약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의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들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의 하나는 사회적 연대 의식 및 연대행동의 확산과 강화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눔의 노력이 가정, 학교, 종교기관 및 지역사회기관 등에서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통해서 확산되고 강화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과제와 관련해서 나눔의 사회화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 수 있는가를 나눔에의 참여 및 나눔노력과 관계 지워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지금까지 나눔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신뢰를 논의하면서 신뢰가 나눔에의 참여 등에 갖는 효과가 주요하게 다뤄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unilateral relationship)라기보다는 쌍방적인 관계(bilateral relationship)일 수 있다. 즉 신뢰가 나눔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나눔활동에의 참여 역시 신뢰의 형성과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다. 후자의 논의는 Robert Putnam 등에 의해서 논의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실증적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주제이나 이 논의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만약 이러한 후자의 논의 역시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면, 이는 바로 신뢰의 형성 및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표현하면, 신뢰가 형성되어야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은 발표되고 있는데, 후자적 논의는 역으로 신뢰 형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접근의 하나가 바로 시민들을 나눔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임을 강조한다. 나눔을 확산하고 사회적 신뢰의 구축을 위한 이런 효율적인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 과연 나눔노력과 신뢰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인가 혹은 쌍방

적인 관계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두 가지 구성요소, 즉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활동은 병행되어 지는 경향이 있는 것인가 혹은 하나에 대한 선택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기부와 자원봉사는 보완재인가 혹은 대체재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위의 연구 주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해서 그 현황을 밝히는 것 역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의 전략 형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06년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의해 실행된 전 국민 기부 및 자원봉사 설문 자료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2006년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 국민 중 20세 이상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인구사회적 분포속성에 맞춰 다층표본추출방식(multiple stage area sampling)을 활용하여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2005년 한 해 동안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주요 초점을 두면서 개별적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된 조사이다. 2006년 조사의 표본 크기는 1,005명이다. 본 표본은 다음의 한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인구사회적 분포의 속성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이들이 과소표집(under-representative)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변수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기술적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기부 참여 여부, 기부의 규칙성 여부, 연간 종교적 헌금의 규모, 연간 경조사비의 규모, 연간 자선적 기부 규모,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연간 자선적 기부의 규모, 가구소득대비 개인의 기부의 비중(종교적 헌금을 제외한 자선적 기부 노력),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의 규칙성 여부, 연간 자원봉사시간의 규모,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연간 자원봉사시간의 규모, 사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4점 척도) 등이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관련 변수의 개념화이다. 즉 기부와 자원봉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보통 외국의 연구에서는 기부와 자원봉사의 개념화 과정에서 종교적인 것 즉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과 종교적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에 대한 금전적 기여까지 기부에 포함시키는 접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기부 개념 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것과 그 밖의 자선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본 자료는 기존의 국내에서의 접근에 기반해서 종교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와 그 밖의 자선적 기부 및 자원봉사를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기부의 규모에 대한 측정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측정에 있어 정확성을 갖기 위해 보통 투입방식에 의한 측정(input measurement)과 산출방식에 의한 측정(output measurement) 등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에서 상대적인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외국의 대부분의 조사가 선택하는 방법인 투입방식의 측정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기부와 자원봉사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한 대상 각각에 대해서 기부나 자원봉사를 했는지를 회상하게 한 후, 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는지를 물으면서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되어지는 변수로 소득수준,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학창시절의 교육경험, 부모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천, 종교기관 및 지역사회기관 등에서의 기부 및 자원봉사 교육, 종교 및 교

육 수준 변수가 활용되었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에서의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실천 경험을 합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음의 분석에서는 이를 나눔의 사회화 변수로 칭하고 이를 다시 기부 사회화 및 자원봉사 사회화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Heckman 2단계 추정 모형(Heckman's selection model) 그리고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 의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즉 나눔활동에의 참여여부 및 나눔노력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Heckman 분석 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을 사용하고,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쌍방향적 관계에 대해서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한다.

먼저 Heckman 분석 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의 유용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얼마나 기부하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기부노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실수는 기부하는 이들만을 선택해서 추정한다는 것이다. 혹은 기부하지 않는 이들은 0으로 놓고, 기부하는 이들의 값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OLS 방식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기부하지 않는 이들의 기부노력을 제외시키고 추정하는 문제를 갖는다. 특히 기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정하기 때문에 과대 추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부는 신뢰 등의 변수에 의해서 그 잠재적인 기능에 대한 추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기부하는 이들만을 놓고 기부노력을 추정함으로써 선택편의(selectivity bias)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기부 노력이 0인 이들, 즉 기부를 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선형관계를 고려함 없이 그냥 OLS를 돌리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첫 번째의 경우에 초점을 두어서 Heckman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부 선택을 추정하는 식을 통해서 기부 노력이 라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노력을 수행한다. 즉 기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 둘 중에서 기부에 참여하는 선택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바로 이 정보는 기부의 정도 즉 기부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신뢰가 있었다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부노력에 대한 추정식을 구성한다. Heckman selection model은 바로 두 번째의 공식, 즉 기부노력을 추정하는데 있어 기부 노력이 0 이상일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으로부터의 정보를 반영해서 두 번째 공식을 추정함으로써 앞서 문제로 제기한 선택편의(selectivity bias)를 정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잠재적인 기능의 추정 방식은 이 두 식(formula)의 오차(error term) 간의 상관관계를 두 번째 추정식에서 반영함에 의해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계적으로 정정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의 유용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많은 실증적 분석에서 일면적인 관계(unilateral relationship)에 대한 분석만을 가능케 하는 모형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즉 회귀분석이나 프로빗과 로짓 등의 질적 반응 모형(qualitative response model) 그리고 영(0)이하의 값이 관찰되지 않는 문제(truncation)나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를 고려한 토빗 모형(Tobit model) 혹은 Heckman 2단계 추정 모형(Heckman's two stage least squares) 등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모형들은 추정 편의(estimation bias)나 모델 부정확성(model mis-specification)으로 인한 추정의 불일치성(inconsistenc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방식들은 일면적인 설명방식(unilateral relationship)에 의존하여 인과적 관계(causality)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을 가능성을 갖고 또한 모델 부정확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면적인 분석을 따르지 않고 양면적인(bilateral) 분석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각각의 추정식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다중 추정식 모형(multiple equation model)중 연립 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분석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본 연구가 갖는 가정은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가 각기 상호 작용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가 각기 어떠한 균형관계(equilibrium relationship)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4.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는 바, 즉 기본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의 현황은 어떠한가? 즉 기부참여 및 기부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및 자원봉사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즉 기부참여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원봉사참여 및 자원봉사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는 쌍방향 관계를 갖는가?

넷째, 자선적 자원봉사노력과 신뢰는 쌍방향 관계를 갖는가?

III. 기술적 분석 결과

1. 자원봉사관련 기술분석

<표 1> 조사대상자의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단위: 시간)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자원봉사시간	9.5005	0.0000	32.75895

조사 대상자들의 연간 자원봉사활동의 규모를 살펴보면,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를 제외한 경우 조사 대상자들은 연간 평균 9.5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상자들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분포는 정적인 방향으로 편포되어 있다.

<표 2> 자원봉사 경험자의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단위: 시간)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자원봉사시간	38.5	16.0000	56.93074

자원봉사 경험자들만을 고려해서 이들의 자원봉사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연간 38.5시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은 평균 한 달에 약 3시간 정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GIVING KOREA 2006

<표 3> 조사대상자의 종교기관을 위한 자원봉사 시간

(단위: 시간)

변수	평균	평균에 대한 표준오차	중간값	표준편차
종교 자원봉사 시간	2.2976	0.4807	0.0000	15.23734

한편 종교적인 목적 하에서 종교기관을 위해 실시되는 자원봉사의 시간, 즉 교회나 사찰 등을 위해 조사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시간은 평균 2.3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자원봉사 시간이 9.5시간임을 감안할 때, 종교기관을 위한 자원봉사시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2. 기부관련 기술분석

<표 4> 조사대상자의 연간 기부 규모

(단위: 1,000원)

변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현금기부	63.8438	10.0000	256.59589
현물기부	6.0398	0.0000	54.1508
현금기부+현물기부	69.8836	10.0000	262.03957

본 조사 대상자들의 경조사비와 종교단체를 위한 현금 및 보시를 제외한 순수 자선적 목적만을 위한 현금 혹은 현물 기부를 의미하는 자선적 기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들의 연간 자선적 기부액의 평균은 현금과 현물 모두를 고려했을 때 69,884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현금기부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평균 63,844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물기부만을 고려했을 시에는 연평균 6,04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평균 현금기부 규모의 경우 표준편차의 값이 크고 중간값 역시 평균값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아, 기부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정적인 방향으로 매우 많이 편포된 모습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물기부는 현금기부의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에서 현물기부는 다소 미약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기부경험자의 연간 기부 규모

(단위: 1,000원)

변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현금기부	93.1248	25.0000	305.53532
현물기부	8.8099	0.0000	65.22796
현금기부+현물기부	101.9350	30.0000	311.33702

조사 대상자 중 실제로 기부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기부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조사비와 종교단체 현금 및 보시를 제외한 총 자선적 기부 규모는 평균 101,935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현금기부만을 고려한 경우 평균 93,125원, 현물기부만을 고려한 경우 평균 8,81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 순수 자선적 목적을 위하여 매월 8,500원 정도의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부경험자들의 기

GIVING KOREA 2006

부규모의 분포는 역시 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편포된 모습을 보인다.

한편, 개인의 자선적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자선적 기부노력’이란 경제적 능력에 대비한 개인의 기부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분석에서는 개인소득에 대비한 기부노력과 가구소득에 대비한 기부노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의 자선적 현금 기부노력은 평균 0.415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물과 현금을 포괄한 개인의 자선적 기부노력은 평균 0.4619%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0.4154% 정도의 수준에서 현금기부를 하고 있으며, 개인 소득의 0.4619% 수준에서 현물과 현금을 포함한 자선적 기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현금을 통한 개인의 자선적 기부노력은 평균 0.2095%이며, 현물과 현금을 포괄한 기부노력은 0.228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소득대비 기부노력의 규모

(단위: %)

변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개인소득대비 현금	0.4154	0.0750	1.92602
개인소득대비 현금+현물	0.4619	0.0833	1.95008
가구소득대비 현금	0.2095	0.0400	0.72408
가구소득대비 현금+현물	0.2280	0.0400	0.73776

<표 7> 부부의 기부규모 및 기부노력

(단위: 1,000원, %)

변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부부 기부총액	175.0318	50.0000	398.48741
부부 기부노력	0.5514	0.1667	1.05294

다음으로 배우자의 기부에 관해서 인지하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의 기부규모 및 기부노력의 정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기부에 참여하는 조사 대상자 개인과 그의 배우자의 기부총액과 가구소득 대비 부부 기부노력을 보면, 부부 기부총액의 경우 한 해에 부부가 기부한 평균 금액은 175,032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부 기부노력은 0.55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 기부노력의 경우, 앞서 제시된 기부경험자 개인의 기부노력인 0.4619%에 비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조사대상자의 종교 기부 액수

(단위: 1,000원)

변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종교 현금 기부	130.0684	0.0000	524.4011
종교 현물 기부	1.0283	0.0000	12.2353

외국에서는 기부의 규모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는 종교적 기부의 규모를 따로 산출해 보면, 현금의 경우 평균 130,068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물의 경우에는 1천원 정도가 종교기관에 현금 및 보시의 형태로 기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선적 기부규모의 2배이상의 규모가 됨을 보여준

GIVING KOREA 2006

다.

다음으로 종교단체에 현금 및 보시를 한 개인의 경우, 그들의 연평균 현금 및 보시의 규모를 보면, <표 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간 437,742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선적 기부를 하는 이들의 평균적 기부규모의 4배 이상의 규모가 됨을 보여준다.

<표 9> 종교단체에 기부한 개인의 현금 액수

(단위: 1,000원)

변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종교 현금 기부한 개인	437.7416	140.0000	890.2497
종교 현물 기부한 개인	3.4608	0.0000	22.2836

<표 10> 조사대상자의 경조사 기부 액수

(단위: 1,000원)

변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경조사 현금 기부	324.4047	150.0000	576.3664
경조사 현물 기부	3.4819	0.0000	31.3362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조사 기부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를 보면, 조사대상자에게 있어 연 평균 약 324,405원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선적 기부규모의 5배 정도의 규모가 됨을 보여준다.

<표 11> 경조사에 기부한 개인의 경조사비 액수

(단위: 1,000원)

변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경조사 현금 기부한 개인	437.3389	300.0000	631.3034
경조사 현물 기부한 개인	4.6941	0.0000	36.3121

다음으로 경조사와 관련해서 기부를 한 이들만의 경조사 기부 규모를 보면, <표 11>에서 인지되는 바와 같이 연 평균 43733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규모는 자선적 기부를 하는 이들의 기부 규모의 4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타 변수들에 대한 기술분석-신뢰와 나눔의 사회화

<표 12> 신뢰의 정도

변수	평균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표준편차
신뢰	38.5830	16.00	39.0000	64.00	7.1959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면 <표 12>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평균 점수는 38.58이고 중간값은 39점으로서 전체점수의 중간값인 40점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들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전

체 중간값보다는 다소 낮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신뢰의 정도가 신뢰함과 신뢰하지 못함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3〉 나눔 사회화의 정도

변수	평균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표준편차
나눔사회화 전체값	5.5055	0.00	6.0000	11.00	3.3137
가족나눔 사회화	2.5075	0.00	2.0000	5.00	1.8395
자원봉사 사회화	2.3264	0.00	2.0000	5.00	1.6595
기부사회화	3.1815	0.00	3.0000	6.00	1.8836

최근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나눔사회화의 정도 그리고 하위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 가족 나눔사회화, 자원봉사사회화, 기부사회화의 정도를 분석해 보면 〈표 13〉에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나눔의 사회화 정도를 보면, 전체값의 중간값인 6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5.5점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가족나눔의 사회화의 경우, 전체값의 중간값인 3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2.5점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의 사회화와 기부의 사회화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의 사회화의 경우 전체값의 중간값인 3점보다 적은 2.33점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기부의 사회화의 경우에는 전체값의 중간값인 3.5점보다 적은 3.18점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나눔의 사회화와 관련해서 연구대상자들이 교육과 경험을 다소 갖고는 있으나 보편적이지는 못하고 다소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IV.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및 수행정도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1. 자선적 기부활동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다음에서는 기부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측 요인 그리고 기부활동의 정도에 대한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즉 〈표 14〉와 〈표 15〉는 Heckman selection model의 two-step 결과들이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사례의 수는 759명이고, Wald χ^2 의 값은 132.07로서 이 모델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14〉는 Heckman selection two-step model의 1단계 분석으로서 자선적 기부 활동 여부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Pr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4〉에서의 결과가 나타내듯이, 자선적 기부활동의 수행여부와 관련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 중에서는 연령, 직업 변수인 자영업, 생산직, 사무직, 주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참여, 기부사회화, 자선기관 투명성에 대한 관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여부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 변수는 대체적으로(marginally)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선적 기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과 생산직 그리고 사무직과 주부 등의 직업적 지위를 갖는 경우 자선적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

GIVING KOREA 2006

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자선적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기부에 대한 사회화가 더 되어질수록 자선적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에 의한 사회적 파급효과의 고려가 더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모습, 즉 이 둘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자선적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한 Probit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의 1단계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연령	.0285381	.0047905	5.96	0.000	.019149	.0379273
자원봉사 참여	.4514659	.1309434	3.45	0.001	.1948215	.7081104
기독교	.0387308	.1221062	0.32	0.751	-.200593	.2780547
불교	.0401931	.1299749	0.31	0.757	-.2145531	.2949393
자영업	1.113061	.2018331	5.51	0.000	.7174757	1.508647
생산직	.8599953	.2081718	4.13	0.000	.451986	1.268004
사무직	1.18235	.2066037	5.72	0.000	.7774142	1.587286
주부	1.008649	.2116665	4.77	0.000	.5937902	1.423507
사회기관신뢰	.0109232	.0506368	0.22	0.829	-.088323	.1101694
가구소득	.0004247	.0003964	1.07	0.284	-.0003523	.0012017
나눔대상과의 거리	.0566194	.051602	1.10	0.273	-.0445188	.1577575
가족규모	.083577	.0538807	1.55	0.121	-.0220273	.1891813
기부사회화	.1053827	.0277459	3.80	0.000	.0510016	.1597637
기부의지	.1692817	.1228659	1.38	0.168	-.0715311	.4100945
기관투명성	.2207276	.1121668	1.97	0.049	.0008848	.4405705
사회적 파급효과	.2926436	.1534869	1.91	0.057	-.0081852	.5934724
Constant	-3.077113	.3838611	-8.02	0.000	-3.829467	-2.324759

다음으로 <표 15>는 Heckman two-step model의 2단계 분석으로서 자선적 기부노력에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OLS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5>에서 정리되듯이, 자선적 기부노력과 관련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선적 기부노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눔대상과의 거리 변수 역시 자선적 기부노력과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눔대상과의 거리를 더 크게 수용할수록, 자선적 기부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VING KOREA 2006

<표 15> 자선적 기부노력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의 2단계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연령	.0037543	.0081572	0.46	0.645	-.0122335	.0197422
자원봉사시간	.0014629	.0013395	1.09	0.275	-.0011625	.0040882
기독교	.2698865	.100601	2.68	0.007	.0727123	.4670608
불교	.1509746	.1087387	1.39	0.165	-.0621494	.3640985
자영업	.1764652	.3909916	0.45	0.652	-.5898643	.9427947
생산직	.0354953	.3600603	0.10	0.921	-.6702099	.7412005
사무직	.1420416	.4237215	0.34	0.737	-.6884373	.9725205
주부	.0155379	.3869788	0.04	0.968	-.7429265	.7740024
사회기관신뢰	-.0002222	.0415064	-0.01	0.996	-.0815733	.0811289
가구소득	6.08e-06	.0002475	0.02	0.980	-.0004789	.0004911
나눔대상과의 거리	.1274087	.0424438	3.00	0.003	.0442204	.2105971
배우자 기부	-.0674642	.1255626	-0.54	0.591	-.3135624	.178634
가족규모	.0158077	.0535055	0.30	0.768	-.0890611	.1206765
기부사회화	.0471918	.0359085	1.31	0.189	-.0231875	.1175712
기부의지	.0458269	.1013018	0.45	0.651	-.1527211	.2443748
기관투명성	-.0743571	.1061953	-0.70	0.484	-.282496	.1337819
사회적 파급효과	.0007051	.1408594	0.01	0.996	-.2753742	.2767845
Constant	-.5451732	1.201394	-0.45	0.650	-2.899863	1.809516

<표 14>와 <표 15>의 분석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기부활동에의 참여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로 연령, 직업더미(자영업, 생산직, 사무직, 주부), 자원봉사참여, 기부사회화, 기관투명성에 대한 관심,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 등이 파악되나, 자선적 기부노력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부노력과 관련해서는 기독교와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들 중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부사회화의 효과와 자원봉사참여와의 관련성이다. 즉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의 기부활동과 관련된 가정, 학교, 종교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의 경험과 교육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실제적 기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에의 기부활동에 대한 접촉을 높이게 유도하는 활동, 기부 에 대해서 교육하는 활동,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은 우리사회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기부참여의 가능성과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둘의 관계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의 관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기부에의 참여를 병행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둘의 관계가 상호 유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다음의 <표 16>과 <표 17>은 자원봉사참여 및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의 two-step 결과들이다. 이 분석에서 사용한 사례수는 681명이고, Wald χ^2 값은 100.62로서 이 모형의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16>은 Heckman two-step model의 1단계 분석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수행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을 Pr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6> 자원봉사활동 수행여부에 대한 Probit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의 1단계

자원봉사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연령	.0078017	.0066262	1.18	0.239	-.0051853	.0207888
기부참여	.5200943	.1408751	3.69	0.000	.2439842	.7962043
기독교	.4762243	.1370983	3.47	0.001	.2075166	.744932
불교	.4150178	.1463787	2.84	0.005	.1281208	.7019147
자영업	-.3094952	.3322992	-0.93	0.352	-.9607897	.3417993
생산직	-.1871379	.3398879	-0.55	0.582	-.8533061	.4790302
사무직	.1090563	.3487486	0.31	0.755	-.5744783	.7925909
주부	-.2972847	.342925	-0.87	0.386	-.9694054	.374836
사회기관신뢰	.0801908	.0569798	1.41	0.159	-.0314875	.1918691
개인소득	-.0012326	.0006453	-1.91	0.056	-.0024974	.0000322
나눔대상과의 거리	-.1864884	.059644	-3.13	0.002	-.3033884	-.0695883
가족규모	.1941807	.0655714	2.96	0.003	.0656631	.3226983
배우자	-.2263487	.1707832	-1.33	0.185	-.5610775	.1083801
자원봉사참여 자원봉사 사회화	.2310386	.0353317	6.54	0.000	.1617897	.3002874
Constant	-2.109548	.5831101	-3.62	0.000	-3.252423	-.9666735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관련해서 기부참여, 기독교, 불교,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정도, 가족규모, 자원봉사 사회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은 대체적으로(marginally)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bit 분석 결과를 보면, 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기독교 및 불교와 같은 종교를 갖는 경우, 그리고 나눔대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더 클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사는 가족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화의 정도가 더 클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관계, 즉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개인소득이 작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수행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은 자원봉사활동 수행과 부적(-인) 방향에서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7>은 Heckman two-step model의 2단계 분석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을 OLS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7>이 보여주듯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과 관련해서 어떠한 변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던 기부참여, 기독교, 불

GIVING KOREA 2006

교,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의 정도, 가족규모, 자원봉사 사회화, 그리고 개인소득 등의 변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OLS회귀분석 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의 2단계

Newtime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연령	.272192	.5496868	0.50	0.620	-.8051744	1.349558
개인기부노력	10.25808	6.677314	1.54	0.124	-2.829217	23.34537
기독교	-4.905354	13.94654	-0.35	0.725	-32.24007	22.42936
불교	-15.44287	13.73353	-1.12	0.261	-42.3601	11.47436
자영업	20.15884	24.7874	0.81	0.416	-28.42358	68.74126
생산직	3.677226	24.16028	0.15	0.879	-43.67605	51.0305
사무직	-5.261091	24.36844	-0.22	0.829	-53.02235	42.50017
주부	22.495	25.03345	0.90	0.369	-26.56966	71.55967
사회기관신뢰	1.624769	4.130526	0.39	0.694	-6.470913	9.720451
개인소득	.0594932	.0538136	1.11	0.269	-.0459796	.1649659
나눔대상과의 거리	-.2151545	5.745478	-0.04	0.970	-11.47608	11.04577
배우자자원봉사 참여	14.78956	11.82512	1.25	0.211	-8.387252	37.96638
가족규모	-5.585066	6.214028	-0.90	0.369	-17.76434	6.594205
자원봉사 사회화	4.160099	5.656169	0.74	0.462	-6.92579	15.24599
Constant	-1.480202	73.78252	-0.02	0.984	-146.0913	143.1309

<표 16>과 <표 17>의 분석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로 기부참여, 기독교, 불교,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의 정도, 가족규모, 자원봉사 사회화, 그리고 개인소득 등이 파악되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들 변수의 관계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 중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 사회화의 효과와 기부참여와의 관련성이다. 앞의 기부에 대한 분석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나눔에 대한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의 사회화는 후속시간 대에서의 이러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의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가정, 학교, 종교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의 경험과 교육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실제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접촉을 높이게 유도하는 활동, 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활동,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은 우리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부예의 참여는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과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부에 대한 위의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둘의 관계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의 관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병행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둘의 관계가 상호 유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V. 자선적 기부노력 및 자원봉사노력과 사회적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 의한 분석

1. 자선적 기부노력과 사회적 신뢰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자선적 기부노력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에 대해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8>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두 내생변수인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각 방정식 내에서의 결과를 보면, 신뢰의 기부노력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기부노력의 신뢰에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에 대한 방정식에서 자선적 기부노력의 신뢰에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가 양면적(bilateral)인 모습을 가질 것으로 보았으나, 이 결과에는 상호 균형(simultaneous equilibrium)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립되지는 않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18>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을 통한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사이의 관계 분석

내생변수	구분	Coef.	Std. Err.	t-value	p-value
자선적 기부노력	신뢰	1.420	1.250	1.14	0.257
	기부 사회화	0.014	0.030	0.45	0.653
	교육수준	-0.073	0.196	-0.37	0.711
	기독교	-0.257	0.443	-0.58	0.563
	불교	-0.084	0.206	-0.41	0.685
	가구수입	-0.000	0.000	-1.12	0.265
	자영업	0.256	0.189	1.35	0.176
	생산직	0.374	0.251	1.49	0.136
	사무직	0.029	0.232	0.13	0.900
	주부	0.234	0.199	1.17	0.242
	Constant	0.264	0.412	0.64	0.522
신뢰	자선적 기부노력	0.880	0.260	3.38	0.001
	자원봉사여부	0.009	0.099	0.10	0.924
	Constant	-0.199	0.064	-3.11	0.002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선적 기부노력 방정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적 기부노력에 대한 예측변수로서 신뢰와 기부사회화 변수 등이 특별히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 연구 결과에서는 예측된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신뢰모형에서는 신뢰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의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 결과와 관련 지워 해석하면, 이러한 결과는 자선적 기부여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여부가 상호 보완재(supplement)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신뢰와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여부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이라는 노력의 측면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2.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9> 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두 내생변수인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에 대한 방정식에서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유사하게 신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자원봉사노력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에 대한 방정식에서 자원봉사노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가 양면적(bilateral)이지 않을 수 있고 상호 균형(simultaneous equilibrium)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9>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을 통한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사이의 관계 분석

내생변수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자원봉사노력 (시간)	신뢰	76.833	74.670	1.03	0.304
	자원봉사 사회화	3.110	1.647	1.89	0.059
	교육수준	-9.868	11.520	-0.86	.392
	기독교	-21.934	26.474	-0.83	0.408
	불교	-10.262	11.928	-0.86	0.390
	가구수입	-0.013	0.022	-0.59	0.555
	자영업	-4.609	10.019	-0.46	0.646
	생산직	6.263	13.696	0.46	0.648
	사무직	-13.233	13.037	-1.02	0.310
	주부	-1.057	10.327	-0.10	0.918
	Constant	22.950	23.096	0.99	0.321

	자원봉사노력(시간)	0.013	0.005	2.36	0.019
신뢰	기부여부	0.036	0.083	0.43	0.666
	Constant	-0.143	0.064	-2.20	0.028

한편, 자원봉사노력 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대체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는 유일하게 자원봉사의 사회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원봉사노력이라는 현상이 자원봉사활동에의 접촉과 교육을 제공해 주는 환경적 배경에, 즉 이러한 사회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모형에서는 신뢰에 대해서 자선적 기부를 위한 참여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서 언급하였듯이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 결과와 관련 지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보면, 이는 자선적 기부여부와 자원봉사활동참여 여부 변수가 상호 보완재(supplement)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신뢰와의 관계에서는 기부에의 참여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시간이라는 노력의 측면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에 의하여 실시된 2006년 ‘전국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아울러서 헤크만 모형을 통해서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았다. 또한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간의 쌍방향 관계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간의 쌍방향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자원봉사시간에 있어서 종교자원봉사를 제외했을 때 전체의 평균은 9.5시간이고, 종교기관을 위한 자원봉사의 평균은 2.3시간이며, 자원봉사를 행하는 이들의 연간 평균 시간은 38.5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원봉사시간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든 규모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부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사는 한국인의 평균적 자선적 기부규모는 현금과 현물을 합했을 때 69,884원 정도이고, 기부를 행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평균 101,935원 정도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 규모를 개인의 소득 및 가구의 소득과 대비시켰을 때, 개인소득에 대비했을 때 약 0.46%정도이고 가구소득에 대비했을 때 약 0.23%정도임을 보여준다. 한편 배우자의 기부를 인지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의 기부노력을 합산할 경우, 이는 가구소득의 0.5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선적 기부의 규모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 등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 전체의 종교관련 헌금 및 보시의 규모에서 현금만을 보면 평균 13만원 정도로 자선적 기부의 2배 이상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헌금 및 보시 등을 행하는 이들만의 평균 규모는 연간 437,742원 정도로 자선적 기부를 행하는 이들의 자선기부규모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금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시킨 경조사비의 규모를 보면, 한국인 전체의 현금 경조사비의 규모는 평균 324405원 정도이고,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만을 보면 평균 43733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의 규모가 자선적 기부의 5배 이상임을 인식할 수 있고, 후자의 규모 역시 자선적 기부를 행하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의 규모가 됨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현재 그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종교적인 헌금 및 경조사비 등과의 비교 차원에서 상대적인 규모를 보면 자선적 기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1/2에서 1/4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헤크만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 참여와 관련해서는 연령, 자원봉사 참여, 직업, 기부 사회화, 기관투명성에의 관심,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 등이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노력과 관련해서는 기독교 및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의 정도만이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았을 때, 기부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설정된 요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부노력에 대해서는 일부 요인만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즉 설정된 요인들의 설명력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부참여여부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기부 사회화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결과는 기부참여노력에는 사회화 변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으나 기부참여 여부에는 사회화 변수의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 참여 역시 기부 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나눔 참여와 관련해서 기부와 자원봉사는 보완재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참여와 관련해서는 기부 참여(+), 종교(+), 개인소득(-),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 사회화(-), 가족원의 크기(+), 자원봉사 사회화(+)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봉사노력과 관련해서는 설정된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았을 때, 자원봉사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설정된 요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원봉사노력에 대해서는 설정된 요인들의 설명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원봉사참여여부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서론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화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노력에서도 역시 사회화 변수의 영향력은 미약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참여여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사회화와 같은 사회화 변수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부 참여 역시 자원봉사 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나눔 참여와 관련해서 기부와 자원봉사는 보완재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부 참여의 경우에는 달리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에는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적인 가르침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서 나눔의 사회화의 방편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해 본다.

마지막으로 신뢰가 사회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사회적 참여 행동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 즉 일방적 분석 방식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노력과 신뢰 간에 쌍방향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는 기대했던 쌍방향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기존의 논의, 즉 신뢰가 사람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적 활동에의 관여함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그 반대의 결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는 사회 및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신뢰의 형성과 강화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하는 Robert Putnam의 주장이 의미 있게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는 논의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시사점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그간 외국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져 온 가정을 통한 나눔과 나눔 교육 등을 통한 사회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임이 검증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최근에 외국의 연구에서뿐만이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자선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논제에 기반한 자선의 가족내외에서의 사회화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 있음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나눔의 확산을 위해서 무엇이 일차적인 과제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즉 무엇보다도 가정 내외에서 행해지고 가르쳐지는 나눔 실천이 지속적으로 나눔을 위한 참여 행동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눔 사회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 형성을 유인하는 노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및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이러한 관대함의 실천이 갖는 의미 및 중요성을 교육하고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 종교기관,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질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둘째로 자선적 기부 및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신뢰가 원인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논의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그 반대 방향에서의 영향력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논의와 검증에 따르면 신뢰의 우선적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선적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비영리 영역의 자원 개발과 확대를 모색하면서 사회에 대한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 더욱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선적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있어서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자극하고 유인하며 유지하는 노력 자체가 선순환적인 관계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보다 효율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사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 및 후속연구와 함께 그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nglish Abstract>

Giving and Volunteering of Koreans

Analysis Using Heckman Selection Model and Simultaneous Equation Model

Kang Chul Hee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I. Introduction

Giving can be partitioned into two principle divisions: the provision of cash and goods and the contribution of time. The former is conventionally known as donation and the latter volunteering. This paper will analyze Koreans' degrees of both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and identify predictive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while ident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efforts toward giving and trust.

Broad participation of citizens is a critical factor in societal inclination toward giving. Given that the formation of social solidarity is facilitated by escalating engagement in giving activities, it is advantageous to analyze participation in such activities. The next crucial element is level of participation. A society will see more s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en a wider range of people participates in giving and the degree of engagement grow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ocus on the promotion of participation and foster engagement in giving. To this end,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on and effort toward giving of Koreans is imperative.

The consequence of philanthropy education has been a recent focus in the promotion of greater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in giving. "Charity begins at home," a commonly cited phrase, currently implies that a predilection to give tends to stem from education and practice at home. Parental influence is significant in the initiation of giving habits but if philanthropy education is systematically provided at school, it will have an augmentative effect. Furthermore, if this education permeates deeply into religiou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future generations will benefit from a more substantial and enduring giving culture.

There is a concern that ongoing demographic shifts may increasingly destabilize Korean society. A shrinking population could result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labor force and a simultaneous increase of the financial burden on working age people to fund pensions for retirees. This may entail financial vulnerability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and a deterioration of social cohesion. One of the social imperatives for our present and future may be the expansion and amplification of

GIVING KOREA 2006

the spirit and practice of social unity. This mandates both expanding and consolidating our giving culture through socialization at home, school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Considering this vital social undertaking, it is crucia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ocialization of giving on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Trust is considered a deciding factor in predicting giving and the investigation of its effect on aspects of giving such as philanthropic participation is pivotal.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giving, however, can be bilateral. Trust can have an impact on giving behaviors while giving may influence the creation of trust. Although the latter hypothesis, which was argued by Robert Putnam, has not been explored in depth in empirical research, it sheds light on social evolution. If the argument were established empirically, it would suggest a new approach for trust-building. Simply put, while studies prove that participation in giving activities tends to increase as trust grows, Putnam and others indicate that involvement in social activities – such as giving and volunteering – is effective in trust-building. When seeking the efficacious promotion of giving culture and building trust in the society, it would be revelatory to investigat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is bilateral or unilateral.

Finally, it has been questioned whether the two components of giving, donation and volunteering, tend to be practiced mutually or independently. That is, it is debated whether they are complementary or alternatives to one another. In this regard, our research will additionally discuss the correlation between donation and volunteering. Empirical findings on this relationship will be useful in developing strategies for giving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societal development.

II. Research Materials and Analysis

1. Research Materials

This research is based on a nation-wide survey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by Koreans conducted in 2006 by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in Korea. Samples were collected across the nation between July 10 and August 11, 2006 on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over, using multiple stage area sampling and taking into account the socio-demographic distribution of Koreans. The survey used interview techniques focusing on the donation and volunteering experience of individuals during the year 2005. The sample size for the 2006 survey is 1,005 subjects. The sample is considered a proper representation of socio-demographical features of South Koreans with one exception: the economic upper class might be under-represented.

GIVING KOREA 2006

2. Variables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The variables used for technical analysis in this research are the following: donation experience, regularity of donation, annual contribution to religious organizations, annual congratulatory and sympathetic contributions, annual philanthropic donation, annual amount of philanthropic donation by people who regularly give money, percentage of philanthropic donation (excluding religious contribution) in household income, volunteering experience, regularity of volunteering, annual amount of time spent in volunteering, annual amount of time spent in volunteering of people who regularly give time, and degree of trust in societal institutions (this variable measured on a 4-point scale).

In this paper, the salient thing is the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donation-related variables donation and volunteering is relatively strictly defined. In general, researchers in other countries include religious contribution and volunteering. Some researchers also include financial assistance to relatives. Research conducted in Korea is inclined, on the contrary, to distinguish religious contribution from secular donation. This paper separately analyzes religious donation and volunteering and donation and volunteering without religious purpose, following the established practice of philanthropy research in Korea.

Measurement of giving and volunteering is another issue in the study of giving and volunteering. Input measurement and output measurement are commonly used techniques regarding accuracy in the measurement of amount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This research uses input measurement, which is adopted by many researchers for efficiency despite relative limitations in accuracy. The input approach measures the scale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by showing the interviewee lists of specific recipients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and asking if the interviewee has donated to or volunteered for each recipient. When a subject responds affirmatively, the subject is asked how much money or time he/she contributed to that recipient.

In this research, the following variables are taken into account: income level, exposure to donation and volunteering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 system, donation and volunteering habits of the subjects' parents, learning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at religious or community organizations, religion, and level of education. In the subsequent analysis, experiences with education and practice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within the home, school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will be combined as the socialization variable of giving and further segmented into socialization of donation and socialization of volunteering.

3. Analysis Methods

Heckman's selection model and simultaneous equation model are selected in this research, along with descriptive analysis of each variable. Heckman's selection model is used for the estimation of participation in giving and the level of effort toward giving, while simultaneous equation models are used to investigate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between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The Heckman selection model is considered useful in this research on several grounds. A possible error might be found in estimating the donation scale or philanthropic effort of individuals thus, analysis might focus only on people who give money with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OLS) estimation.

It is problematic as it excludes the effort toward giving of people who do not donate. In particular, it may result in an error of over-representativeness by ruling out potential operations that may influence the choice of giving. For example, giving can be estimated for its potential relationship with variables such as trust. Estimation only subjected to people who give money may have selectivity bias in this regard. In addition, it may not obtain accurate OLS estimation when it fails to consider possible linear relations from people who do not give. Heckman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regarding these issue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first case. Initially, a procedure can be performed to obtain information on potential operations that may influence effort toward giving by using an equation to estimate people's choice of giving. Researchers can collect data showing the degree of influence of a specific variable on the decision of individuals who choose giving over not giving. This information may lead to more accurate prediction of an individual's degree of giving or effort toward giving. For example, an estimation equation can be created for effort toward giving using data obtained about people who might have given had they had trust in the recipient. Heckman's selection model corrects the selectivity bias described in the previous paragraph by estimating a second equation reflecting data of potential operations of which effort toward giving is presumed over 0. This method of estimating potential operations takes an approach that statistically corrects selection bias by reflecting the correlations of error terms between the two equations in the second estimation equation.

Regarding the efficacy of simultaneous equation model, many empirical analyses have adopted models that simply enable analysis of unilateral relationships. For example, qualitative response models such as regression analysis, probit and logit models, the Tobit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sample selection bias or truncation which discards values below 0, or Heckman's two stage least squares are considered attempts to resolve issues of inconsistency in estimation that rise

from estimation bias or model mis-specification. However, these estimation models depend on unilateral relationships, which may prevent them from providing proper explanations of causality. There also remains an issue of model mis-specificat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is paper adopts a multiple equation model, specifically simultaneous equation model, which enables not only identification of causalities to a certain degree through a bilateral analysis but also a lucid interpretation of each estimation equation.

When using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research assumes that values are determined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between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 that is, values are determined when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have achieved a certain equilibrium.

4.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effort of Koreans regarding giving? In other words, what is their level of participation and level of effort in giving? What is their level of participation and level of effort in terms of volunteering?

Second, what are the identifiable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s' participation and effort in giving? What are they in terms of participation and effort in volunteering?

Third, do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have a bilateral relationship?

Fourth, do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have a bilateral relationship?

III. Results, Conclusion and Discussion

This research used '2006 National Survey on Giving and Volunteering of Koreans', conducted by the Beautiful Foundation in Korea, to defin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effort toward giving of Koreans. Along with descriptiv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Heckman's selection model was employe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influence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In addition, an empirical analysis was attempted by using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determine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between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GIVING KOREA 2006

The average annual time spent volunteering was 9.5 hours (excluding volunteering for religious purposes), while volunteer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s took an average of 2.3 hours. The annual amount of time for volunteering among people who do regular volunteer works averaged 38.5 hours. Overall, the time spent for volunteering has reduced slightly compared to past years; the chang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Additionally, there seems to be little change in donation.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average annual philanthropic donation of Koreans of combined cash and goods amounted to about 69,884 won (US \$70), with an average of 101,935 won (\$102) for people who give money regularly. As a percentage of personal and household income, donation comes to 0.46% of personal income and 0.23% of household income, on average. In addition, focusing on giving efforts of a married couple who were aware of his/her partner's giving, it amounted to about 0.55% of household income.

When compared with the scale of philanthropic donation, the average religious cash contribution of 130,000 won (\$130) was more than double that of philanthropic donation; the annual average of about 437,742 won (\$438) of combined cash and goods given for religious purposes by people who donate regularly for religious reasons was more than four times that contributed by people who give for philanthropic reasons.

As to congratulatory and sympathetic gifts, which were includ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study because of strong continuity of the traditional custom, the amount of cash given for the purpose per year reached 324,405 won (\$ 324) in average. When considering only for people who give for the traditional reasons, the average was 437,339 won (\$ 439) when cash and goods are combined. This demonstrates that more than five times the average cash philanthropic donation is contributed for the causes such as mutual assistance. Such donation (437,339 won) is more than four times as large as philanthropic donation made by people who give for philanthropic reasons.

In summary,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of Koreans have not significantly changed. As a proportion of contributions made for religious purposes and mutual assistance, philanthropic donation was one-half to one-quarter of the respective amounts.

There are several findings derived from Heckman's selection model. Regarding participation in giving, the factors of ag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occupation, socialization of giving, concern for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organizations, and social impact of the cause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positive (+) direction. In terms of effort towards giving, however, only membership in a

GIVING KOREA 2006

Christian religion and general social acceptability (distance) on the recipients demonstrat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positive direction. In sum, those factors seem to have some influence on people's participation in giving, but they are insufficient for influencing effort towards giving.

It is noticeable; however, that socialization of giving, which w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of this pap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in philanthropic participation. This implies that although socializa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s effort to philanthropic causes, it ma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whether or not someone participates in philanthropic giving. Meanwhil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lso appeare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ticipation in giving, which indicates that donation and volunteering can correspond to one another.

As for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participation in giving (+), religion (+), personal income (-), general social acceptability (distance) on recipients of donation (-), family size (+), and socialization of volunteering (+)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 the other hand, none of the factors were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effort (hours) to volunteer. Those factors seem to be somewhat influential in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but have little effect, if any, on the effort to volunteer.

As mentioned above and in the introduction, socialization stimulates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lthough it appears not to be perceptibly influential in the effort to volunteer, socialization variables, such as socialization of volunteering, ma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volunteering. Furthermore, as shown with donation, participation in donation also demonstrate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indicating that donation and volunteering can be complementary.

It is also shown that religion is likely to be an influential factor in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but not in participation in donation. The potential influence of religious teachings indicates that socialization of giving needs to be approached from diverse directions.

Lastly, this research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rust influences social participatory behaviors and vice versa by assuming a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between the effort to volunteer and trust by employing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in order to overcome the restrictions that the existing unilateral approach may present. While the outcome did not confirm the expected bilateral relationship, an interesting result was evidenced. Many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trust can be a primary influence on the positive decision to engage in social activities through giving or volunteering. The results of our research, however, suggested the reverse might be true as well.

GIVING KOREA 2006

It underscores Robert Putnam's argument that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giving and volunteering helps create and strengthen people's trust toward the society and its members.

This research presents two significant points for review. First, it has proven that the socialization through giving at home and philanthropy education identified as important in other countries by previous studies can have a similarly positive effect in Korea. The results of our research that empirically show the encouraging effect of socialization of giving based on the expanded notion "Charity begins at home" can indicate a possible initial step in fostering a sustainable giving culture in our society. Simply put, given that the practice of giving learned inside and outside of home ca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philanthropic participation, it is pivotal in the long run for us to make an effort to create a sustainable culture of philanthropy through the socialization of giving.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for schools, religious organizations, civic group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provide an array of philanthropic education programs that teach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altruism at home, in schools, and in communities.

Second, unlike to the general assertion that trust can be a causal variable in philanthropic donation and volunteering, this research implies that the reverse can be more influential. While many papers have established that trust-building needs to come before encouraging donation or volunteering, this research has indicated that participation in giving and donation could have the additional effect of accelerating trust-building. It can be argued using this finding that promoting increased participation in philanthropic giving and volunteering will be an effective strategy in the endeavor toward trust-building in civil society and the augmentation of non-profit sector resource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anthropic giving, volunteering, and trust, making an effort to accelerate, attract and maintain public participation in giving and volunteering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that intensifies a virtuous circular relationship. Finally,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revisit these findings and following research efforts need to be made with applying more specified methods for their practical application.